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7 ~ 12/23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6	빅 마인드	앤스퀘어	정신세계사
2	인생수업	법륜	휴	7	흔적 없이 나는 새	수물	김영사
3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희	선행수기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9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한산암
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담앤북스	10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나무앤사람들

## 책속의말줄거기

●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이른 것이 중요한 건 언어가 끊어졌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중에서

# Q:진정한 깨달음은? A:기존 생각 내려놓고 현실 다르게 이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보통 깨달음하면 수행력이 높은 특별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선사들은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편견을 부수버린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처는 똥 막대기'라는 운문 선사(乾屎闍)화두다. 이는 부처님을 신성시하고 깨달음을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어리석은 범부들의 알음알이(분별심)를 공격하는 말이다. 참선이 특별한 것처럼 오해한 불교와 선문답의 세계에 대한 왜곡과 역사적 오류를 지적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선문답의 특수성을 풀어헤치고,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비적인 측면만 강조된 문답만을 파헤쳤다.

선문답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선문답이 우리의 평범한 심리적 구조를 분석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동시에 깨달음을 특별한 것으로 오해한 선사들의 과격적 비판을 시도했다. 저자에 따르면 깨달음의 세계는 따

로 정해진 것이 아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일상적 경험과 관계 속에 깃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아닌 기존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현실을 다르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산 정상에 오르는 데서 등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점부터 새 길이 시작되는 것처럼, 깨달음은 다른 삶, 다른 생각을 여는 것을 이룬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새로운 언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지혜를 가리킨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저자는 선문답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어떤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답은 자기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해종고 스님이 화두에 '의정(疑情)'을 일으키는 간화수행법을 발명한 후 '자문자답(自問自答)'이 간화선의 중요한 수행법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 자기 안에서 길이 열리는 답을 통해 수행자들은 스스로 깨달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질문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저자는 '의정(疑情)'이 논리적 충돌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저자는 이 충돌을 일으키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침묵은 수행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침묵 한다고

### 선문답의 원리 철저히 분석

### 선문답서 중요한 것은 '질문'

### 대답은 자기안에서 나와야 돼

### 깨달음 오해한 선사들 비판 시도

마음속의 생각을 제대로 살필 수 없고, 자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알음알이를 부정하는 선지식들로 인해 진정한 깊은 진리는 말이나 글을 써서 전할 수 없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나 불교의 진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만 전해진다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전통을 만

들어왔다고 본다.

저자는 이런 전통을 잘못 받아들인 수행자들 중 출가 후 아무 생각 없이 30년을 살아온 수행자들도 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 수행자는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추상적 삶에 몰두하게 되었고, 자기 삶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으며, 급기야 수행자가 무식하고 어리석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학인의 생각이 너무 강고해 도저히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격외적 논리를 띤 질문을 제시한다. 그래서 격외적 논리로써 학인에게 실상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불교에서 침묵은 종교적 생활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이 침묵만을 덕목으로 간주한 건 아니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바르지 못한 사고를 전제된 질문에 대해서만 침묵했을 뿐, 단정적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나 본질을 왜곡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한 대답을 했다. 질문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질문자의 어리석

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대답으로 부처에게 언어는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었고, 침묵 또한 방편일 뿐이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선문답의 세계에는 인간의 경험지를 뛰어넘는 '신성한 존재'나 범속한 언어를 뛰어넘는 '신성한 언어'라는 것이 없다.

선문답이 언어적 관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특정한 존재나 언어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서다. 저자는 언어의 연기법적 원리를 강조하는데, 이는 언어가 연기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의미이다. 선사들은 언제나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독단을 경계했다. 그러나 선사들의 선문답이나 침묵을 초월적·신비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문답의 세계에 대한 화두와 비판을 이해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비판하며, 간화선 수행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편적 수행임을 강조한다. 이로서 깨달음의 내용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기존 생각을 다만 '바르게' 이해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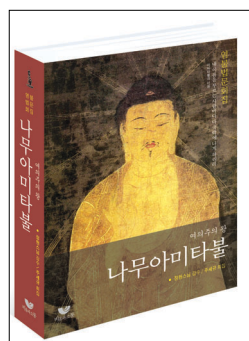


###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자명 지음  
민족사 펴냄  
2만5천원

## 칭명 염불 가르침과 고승 말씀 '會集'

(회집)



### 나무아미타불

정현 스님 지음  
주세규 회집  
비움과소통 펴냄  
5만원

"제가 부처가 될 때 사방세계의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모든 선근(善根)을 일심으로 극락왕생에 회향하고,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제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들의 말씀들을 모아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이른바 '백독책'이다. 염불 중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지명염불(칭명염불)에 관한 성스런 가르침과 고승 말씀들을 회집(會集)했다.

성인(聖人)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많은 종교에서 널리 권장하는 보편적인 수행법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가장 성스러운 수행법중 하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염불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낮은 수행법으로 치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견을 깨부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수행을 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회집했다고 저자는 밝힌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염불에 관한 감로법문 중 핵심을 꿰뚫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만 엄선했

다.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고 고차원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배제했다. 다만 본문 밑에 달린 주석들은 본문보다는 다소 어려운 말씀들도 과감히 실었다. 본문과 직접 관련된 말씀은 물론이고, 본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 놓은 것은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이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염불법문 원문(原文)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찾아낸 것들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I 편은 '염불'의 개론서라고 보면 된다. 극락왕생의 정인(正因)이자 정행(正行)이라 할 수 있다. 가히 이 책의 중추이자 골간에 해당된다. 염불의 정의와 칭명의 뜻, 염불의 역사, 불가사의한 염불의 공덕과 수행법, 대승경전과 역대 조사들의 정토법문이 치밀한 주석과 함께 총망라 돼 있다.

II 편은 극락왕생의 조인이자 조행이라 할 수 있는 육식과 날이 갈수록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사음(음란)의 죄악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사음을 경계하는 글들을 모아놨다.

김주일 기자

## 한국불교 현장 등 다양한 話題 산문집

(회제)



### 월정사 탐돌이

원형 스님 지음  
에세이스트 펴냄  
1만5천원



오대산 월정사에서 매년 열리는 탐돌이 모습

월정사의 탐돌이는 1977년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된 제1회 태백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탐돌이 전통이 꾸준히 계승되고 있는 사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월정사 처럼 1977년의 자료가 남아 있는 사찰도 드물다. 그래서 월정사 탐돌이의 민속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월정사는 그동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과 문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 월정사탐돌이의 무형문화재 등재 염원 등을 발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형주님과 신도단체, 보존회회원 등이 모여 탐돌이를 봉행해 왔다. 탐돌이는 이제 월정사의 상징이 됐다. 현재 월정사 부주지로 있는 원형 스님이 산문집

을 최근 펴냈다. 제목은 <월정사 탐돌이>이다. 제목만 읽기 보면 탐돌이 내용으로 가득차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탐돌이 내용은 1부 첫머리에만 조금 등장한다. 월정사서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단 것 같다. 책에 소개된 내용은 산문집답게 다양하다. 1980년 10·27 불교법난, 1981년 월정사 분규사태 등 불교 역사의 현장과 대한민국 갈등, 지구촌 문제, 어머니, 선, 화두 등의 화제로 써내려갔다.

원형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돌이켜 보면, 1980년 10·27 불교 법난, 1981년 월정사 주지 분규 사태, 1982년 월정사 분규로 원주교도소 복역, 1983년 6월 탄핵스님 열반 등 한국불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년 자유롭지 못했고 때로는 중심에도 서야만 했으니,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사태는 또 다른 수행의 경책이었음은 물론, 좁은 강에서 너른 바다로 나가는 물목이었음에 틀림없다"고 회고했다. 한편 저자인 원형 스님은 <월정사 탐돌이> 출판기념회를 구랍 24일 서울 조계종 총무원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 (사) 호국불교조계종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봉 불기 2558년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및 전 종도 법계고시 행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 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승단의 목표로 전 종도 법계고시를 봉행한 바 원만히 회향 하였음을 제방에 사뵐니다.

■ 구족계 수계산림 입재일 : 불기 2558년 12월 14일

■ 법계고시 입재일 : 불기 2558년 12월 15일

■ 법 계 고 시 회향일 : 불기 2558년 12월 16일

■ 법 계 고 시 사 : 부산 총무원 관음정사 (부산역 건너편)

### 법계품수자(법계순)

일봉 천희 회장	의광 관희 청불 회장	진여 원희 불모 청수	운암 참희 불모 청수	서암 희천 회천 청운	정무 연화 청운	정학 무향 관음	수여 묘향 상문	용현 조론심 법광	대일 연화심 돈비	무천 범주 덕인	무무 범운 덕인	법광 교각 도명	법정 대주 해광	봉덕 범주 덕인	종사 범운 덕인	법광 교각 도명	법광 교각 도명
----------	-------------	-------------	-------------	-------------	----------	----------	----------	-----------	-----------	----------	----------	----------	----------	----------	----------	----------	----------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 전화 051-442-5658

\* 종단 동참연락처 : 총무 010-4566-4504 / 홈페이지 http://jogyejong.kr / 모바일 : 호국불교조계종 / 팩스 051-442-5659 / 이메일 ok-1207@hanmail.net

###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성도 합장

입증업체 : 수봉전자(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선거음향, cctv, 노래방기기, 야외앰프  
부산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홈페이지 http://www.kukjeav.com 전화 010-3832-8855 수봉 합장

### 세계불교문화교류포럼

(발기인 동참 : 종단포럼 전화 010-4566-4504)